5분 자유발언

김철현 의원
(용당, 감만1·2, 우암)

우암동 외대부지 매입에 적극적이길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우암동의 옛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이 5년 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남구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부산시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대책을 촉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 밝은 날이 올 거라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암동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인근상가 분들이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5년째 외국어대학교 부지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기에 감만2동 상인회 박동철 회장께서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계십니다. 잠시 이 분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겠습니다.

"외대 부지 해결과 관련한 남구청의 대응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 혼자의 힘은 미약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면교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두 번 다시 우리 남구에서 주민의 허락없이 대학이 빠져나가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입니다. 외대 부지가 조속히 해결되고 상권도 살리고 무너진 지역주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동영상 내용 일부)

모두 잘 아시겠지만, 부산외대는 2014년 2월 우암동 캠퍼스를 끝내고 옛 외대부지만 남긴채 학생과 교직원 등 8,500여 명이 남산동으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현재 이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상권 또한 쇠락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시의원들께서 옛 외대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여러차례 제안한 바 있으나 5년이 지나도록 13만㎡의 우암동 옛 외대 부지는 그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학 측은 지역의 민심과 공적기능을 외면한 채 수익창출에만 급급하다보니 부지 개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지개발이 표류하면서 지역이 슬럼화되고 상권이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민심은 악화되어 학교, 행정, 정치에 대한 분노로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남구청은 부산시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해결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재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 부산외대 부지는 우리의 노력여부에 따라 부산의 원도심권 개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구청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여 부산시와 토지, 건물 소유주인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주도적인 자세로 협상을 하여 토지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남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으며, 이강영 의장님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 의원
(용당, 감만1·2, 우암)

감만2동 석포로변 가로수 이식 등 건의

본 의원은 감만2동 석포로변 일대의 주민의 골칫거리인 느티나무 가로수의 전정 및 이식, 수종교체 등을 건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환경에 자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열섬효과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존재가 주민 삶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만2동 주간선도로인 석포로변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로변 좌우측에 약 10m간격으로 가로수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로수는 인도폭에 비해 비대하고, 뿌리가 과다발육하여 보도블럭이 일어나 길이 울퉁불퉁해서 주민보행환경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감만2동에서는 부적합한 보행환경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무성한 나뭇가지와 나뭇잎은 가로등 불빛을 막아 야간 보행자와 도로 운전자에게도 방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주변상권의 발전에도 역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철에 발생되는 가로수의 많은 낙엽은 주변 주택가 하수도를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로수 이식 등을 관에 요구하였으나 부산시에서는 도심지내 녹지공간 확대정책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고, 차선책으로 매년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로수 전정작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구 외국어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컨테이너 차량이 가로수의 가지에 부딪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차량 외 요인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년 하절기에 찾아오는 강한 태풍으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만2동은 부산외대 이전으로 유동인구가 줄고 지역경제가 수년째 침체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상권의 발전마저 저해하는 요소로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변상권 활성화에 피해를 주는 등 석포로변의 거대한 가로수는 단순한 전정작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구에서 가로수의 관리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수종교체와 이식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만 해결될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주거단지 개발로 인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만2동 석포로 가로수가 선진국형 도시정비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부산시와 연계하여 가로수의 수종 교체와 이식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선화 의원
(용호2·3·4)

용호부두 신속한 폐쇄 및 친수공간 조성을

지난 2월28일 러시아의 6천톤급 화물선인 씨그랜드호가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 하판에 충돌하여 3~5m의 구멍이 나고, 광안대교 전체에 적지 않은 내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물선은 용호부두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 신고는 물론, 도선사의 도움도 없이 혈중농도 0.08%의 만취한 선장이 운항하여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관계당국의 사전 대응은 물론이고, 주민신고에 의해 사고를 인식하고 사고발생 100분이 지나서야 시민들에게 차량 통제 사실을 알리는 등 사후 대응이 부실하였던 점을 비추어볼 때 과연, 하루 평균 12만대가 통행하는 광안대교의 안전관리 매뉴얼은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칫,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고 교각 붕괴로 이어져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2의 성수대교 참사가 재현될 수 있었다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용호부두는 과거와는 달리 부산을 대표하는 교량건축물이자 핵심 교통시설인 광안대교와 직선거리가 35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와 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배후에 두고 있는 37,716㎡(약 11,400평)의 매우 작은 규모의 부두로 유람선 선착장의 요트 운항, 방파제 확장 등으로 대형선박이 입출항하기에는 매우 협소하고 도선사의 승선의무가 없는 임의도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번 충돌과 같은 사고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론 등에서는 6월 3일 이후 부두운영을 중단한다고 보도되었으나, 부두입지가 국내외 해운 항만환경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아 부두운영 및 이용이 한계에 도달한 용호부두에 벌크선 등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즉각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폐쇄될 용호부두는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오륙도를 연계하는 해양관광 축 상에 위치하고 해양 조망이 우수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임박한 인근 섶자리 지역과 연계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크루즈 관광시설로 특화하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거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항만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사고로 해상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 입·출입 선박 관리부실,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등 부산시와 관계당국의 해양사고 대응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사실이 표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구 재난관리 부서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소 방재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고 재난대응 훈련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미 의원
(비례대표)

어린이집 내 폴리스 콜 설치를

어린이집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 사회생활을 경험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첫 번째 장소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에 있어 어린이집은 경제활동 시간을 보장받고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순기능을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현장에 종일반 취약시간 의무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돌봄공백을 해소 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부산시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집에 아동의 존재유무를 떠나 무조건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도록 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도 교사의 초과수당 분으로 1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고 남구 145개 전체 어린이집 중 11개 제외시설 및 미운영시설 9개소를 뺀 125개 시설이 의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늦게까지 자녀를 맡기는 부모님들께 심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아동의 존재유무를 떠나 일괄적으로 의무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초과수당 이외로 교사에게 지원되는 추가비용도 발생하여 아동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드는 등 보육현장에 새로운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머무는 아동과 혼자 남아있는 여성교사의 안전 관리가 심히 우려되어 안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남구 관내 어린이집은 아직도 인적이 드문 곳도 많을 뿐 아니라 늦은 시간에 교사 1명이 여러 아동을 보육하다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 될 경우, 사고 아동을 제외한 타 아동에 대한 보육문제가 발생하고 여성교사 1명과 어린아동들만 있어 야간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남아있는 여성 교사에게는 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늦게까지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에게는 보다 더 신뢰감과 믿음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폴리스 콜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폴리스콜 설치는 꼭 야간이 아니더라도 여성과 어린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보육시설에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폴리스 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예고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에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비단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폴리스 콜 설치 지원과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언제나 힘든일 마다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아이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근거해 구의원에게 보장된 권리로 발언 내용은 남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도서관 주간 행사 안내

남구·분포도서관에서는 4월 도서관 주간 행사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남구도서관(☎607-6562)

행사명	내 용	일시 및 장소	대상 및 인원	접수방법
학부모 특강	빅 데이터 시대 내 자녀를 위한 새로운 독서모형	4.4(목) 10~12시 취미실(2층)	학부모 25명	3.27(수) 11시부터 인터넷 접수
	색채 전문가가 들려주는 우리아이가 행복해지는 COLOR	4.13(토) 10~12시 시청각실(2층)		4.3(수) 11시부터 인터넷 접수
어린이 체험	BOX북으로 세계여행 떠나자	4.14(일) 10~12시 취미실(2층)	유아 5~7세 20명	4.4(목) 15시부터 인터넷 접수
	어린이 쿵떡요리	4.17(수) 16~18시 취미실(2층)	초등1~3학년 20명	4.5(금) 11시부터 인터넷 접수
	내가 만드는 건축물 -북하우스 만들기	4.21(일) 10~12시 취미실(2층)	초등4~6학년 20명	
지역예술사람책 -봄(영화편)	옥미나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토크강연 (토크주제 - "활자의 상상을 스크린에 이미지로 펼친다")	4.25(목) 10~12시 취미실(2층)	지역주민 25명	4.10(수) 10시부터 인터넷 접수
어린이 공연	밥 아저씨의 매지컬 드로잉	4.12(금) 18~19시 시청각실(2층)	유아, 초등(1~3학년) 및 보호자 100명	4.3(수) 15시부터 인터넷 접수
원작이 있는 영화	'꽃을 좋아하는 소 페르디난드'를 원작으로 한 영화	4.14(일) 14시 시청각실(2층)	도서관 이용주민 (전체관람가)	선착순
원화프린트 전시	그림책「잠잠깨비」 -저자 : 이연실	4.2(화) 4.26(금) 도서관 로비(1층)	도서관 이용주민	
행복잡지 나눔행사	과년도(2018년) 교양잡지 무료배부 * 1인당 최대 5부 가능, 소진시 조기마감	4.17~18(수, 목) 10~17시 도서관 로비(1층)	도서관 이용주민	선착순
추천도서 목록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별 추천도서 목록 배부	4.2(화)~4.28(일) 어린이실, 종합자료실	도서관 이용주민	
+ONE BOOK DAY	대출권수를 기존 5권에서 6권으로 확대	매주 금요일	도서관 이용주민	

■ 분포도서관(☎607-3642)

행사명	내 용	일시 및 장소	대상 및 인원	접수방법
학부모 특강	부모와 아이를 위한 그림책 감성 인문학	4.17(수) 10~12시 2층 배움실	학부모 20명	4.3(수) 11시부터 인터넷 접수
어린이 체험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4.14(일) 10~12시 2층 배움실	초등3~5학년 20명	4.4(목) 11시부터 인터넷 접수
	호기심 톡톡 나는야 과학자	4.20(토) 13시~15시 2층 배움실	초등1~3학년 20명	
원화프린트 전시	오키나와의 목소리 -마루키 도시 지음/꿈교출판	4.9(화)~4.26(금) 도서관 2층 로비	도서관 이용주민	
응 모	가로 세로 십자 퀴즈	4.9(화)~4.25(목) 4/26(금) 당첨자 개별연락	초등학생 (저학년/고학년)	
추천도서 목록배부	-「평화!책을 만나다」 목록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별 추천도서 목록 배부	4.2(화)~4.28(일) 어린이실, 종합자료실	도서관 이용주민	

부산남구문화원 제44기(4월~6월) 문화강좌 운영

http : //blog.naver.com/bsnamgu07

■ 강좌신청(접수)

접수기간	기존회원	3월 18일(월)부터 선착순
	신규회원	3월 25일(월)부터 선착순마감
접수방법	방문접수(기존회원-전화접수 가능)	
운영기간	2019년 4월 1일(월)~6월 21일(금)	
수 강 료	연회원 : 40,000원 // 비회원 : 60,000원 / 노래교실 별도	
접수장소	부산남구문화원 3층 사무국(☎624-1333)	

■ 노래교실(접수)
-수강료 30,000원(교재비포함), 남구청 1층, 현장접수

■ 문화원 연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 연회비 : 50,000원
-가입한 날부터 1년간 적용(수강신청기간 가입 가능)
-연회비는 환불 불가하오니 가입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강 좌 명		강 의 시 간	정원	강의실	강사명	준비사항
남도민요		목 15 : 00~17 : 00	20명	제3강의실	박소영	교재(개인구입)
사진교실		금 10 : 00~12 : 00	15명	제3강의실	주철민	카메라 개인 지참
다도반		화 10 : 30~12 : 00	15명	제1강의실	박정희	재료비 별도
가곡반		금 16 : 00~17 : 00	30명	대강의실	양승엽	
노래교실		목 14 : 00~15 : 30	200명	남구청	정혜원	
자서전 쓰기		월 10 : 00~12 : 00	20명	제3강의실	김다희	교재(개인구입)
태극권		화, 목 11 : 00~12 : 00	25명	대강의실	이월향	실내화 개인 지참
한국무용	초급	월, 수 13 : 30~14 : 30	25명	대강의실	황지인	버선 개인 지참
	중급	월, 수 14 : 30~15 : 30	25명			
댄스 스포츠	연구	월, 금 09 : 30~10 : 20	24명	대강의실	남우석	신발(댄스화) 개인 지참
	고급	월, 금 10 : 20~11 : 10	24명			
	중급	월, 금 11 : 10~12 : 00	24명			
	초급	월, 금 12 : 00~12 : 50	24명			
수묵화(한국화)		목 10 : 00~12 : 00	15명	제2강의실	구윤근	재료비 별도
수채화	A반	목 10 : 00~13 : 00	15명	제1강의실	권용호	재료비 별도
	B반	금 10 : 00~13 : 00	15명			
연필소묘	A반	목 13 : 30~15 : 20	15명	제1강의실	이재영	4절스케치북, 지우개4B·2B 톰보우연필
	B반	목 15 : 30~17 : 20	15명			
기초한문서예		금 13 : 00~15 : 00	15명	제2강의실	박재광	재료비 별도
사군자·문인화		금 15 : 00~17 : 00	15명			재료비 별도
우크렐레	초급	월 15 : 00~17 : 00	15명	제2강의실	한기헌	악기 개인 지참
	중급	월 13 : 00~15 : 00	15명			
	고급	월 11 : 00~13 : 00	15명			
통기타	초급	목 13 : 30~15 : 30	15명	대강의실	한기헌	악기, 보면대 개인 지참
	중급	화 13 : 30~15 : 30	15명			
	고급	목 15 : 30~17 : 30	15명			
	공연반	화 15 : 30~17 : 30	15명			
가야금		수 10 : 00~11 : 00	20명	대강의실	양태숙	악기 개인 지참
하모니카	초급	수 13 : 30~15 : 00	15명	제1강의실	유향연	악기 개인 지참
	중급	수 15 : 10~16 : 40	15명	제3강의실		
오카리나	초급	수 10 : 00~12 : 00	15명	제2강의실	이귀숙	악기 개인 지참
	중급	수 13 : 00~15 : 00	15명			
영 어	생활회화1	화, 목 12 : 00~13 : 00	20명	제3강의실	김재업	교재(개인구입)
	생활회화2	화, 목 13 : 00~14 : 00	20명			
	여행회화	화, 목 14 : 00~15 : 00	20명			
일본어	중급	화 09 : 40~11 : 30	20명	제3강의실	김혜인	교재(개인구입)
	초급	화 13 : 00~15 : 00	20명	제1강의실		
중국어	초급	금 15 : 00~17 : 00	20명	제3강의실	사영경	교재(개인구입)

※ 문화원에 처음 등록한 수강생은 기초반으로만 접수가능하십니다.

4월 무료 영화 상영

* 영화관람은 선착순 무료 입장

	상영일	상영영화	상영정보	상영시간 및 장소
남구 도서관	4월 7일	뽀로로 컴퓨터왕국 대모험	전체, 애니, 더빙	매주 일 오후2시, 남구도서관 2층 시청각실 (선착순 무료 입장) 문의 ☎607-6575
	4월14일	페르디난드	전체, 애니, 더빙	
	4월21일	빨간모자의 진실	전체, 애니, 더빙	
	4월28일	거리의 소녀 마로아	전체, 드라마, 자막	
대동골 문화센터	4월12일(금) 오후3시	약장수	15세, 드라마	2층 공연장 선착순 140명, 음식물 반입 불가(생수 가능) ☎607-3381
	4월26일(금) 오후7시	건축학개론	12세, 로맨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월21일(일)	다키스트 아워	12세, 드라마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오후 2시 선착순 50명 ☎629-8631